

SERI 경제 포커스

2013. 4. 16. (제416호)

미국 재정정책의 3大 이슈와 전망

목차

FOCUS	1
1. 미국 재정정책의 동향	
2. 미국 재정정책의 3大 이슈	
3. 전망	
주간 금융지표	13
경제일지	14
경제통계	17

작 성: 박현수 수석연구원
(hspark@seri.org)
02-3780-8251

< Executive Summary >

미국경제가 아직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저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악화된 재정상황이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의회가 2013년 초 부유층 증세에 합의하면서 재정절벽 위험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이후 정치권의 협상 부진으로 3월부터 시퀘스터(Sequester), 즉 재정지출 자동감축 조치가 발효되고 말았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재정정책은 미국경제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이 재정정책에서 대립하면서 이견을 쉽게 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철학의 차이에 기인한다. 최근 미국 정치권의 재정정책 협상은 크게 세 가지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 첫째, 세금 추가 인상 문제다. 2013년 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한 발씩 양보하여 부유층 증세에 합의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세금을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연초의 합의로 세금 인상 문제는 종료되었다는 입장이다. 둘째, 시퀘스터를 수정해야 한다. 시퀘스터는 각 예산항목의 지출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조치로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양당은 모두 현행 시퀘스터의 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의료개혁정책에 대해 대립하고 있다. 2010년 제정된 의료개혁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핵심 규정은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고령인구 증가와 저성장 등으로 의료보장에 따른 재정부담이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공화당은 의료개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의회의 주도권을 양당이 나누어 가지고 있어 중요한 정책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이나 2014년 예산안 심의 등이 재정정책 협상에 중요한 계기가 되겠지만 현재의 정치상황에서는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이 필요한 2013년 5월까지의 물론이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긴축과 함께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은 소비와 투자 심리를 저해하여 향후 미국경제의 회복을 억제할 것이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일부 지표의 호전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재정정책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있어 미국 및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위험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미국 재정정책의 동향

미국은 저성장 속에 최악의 재정난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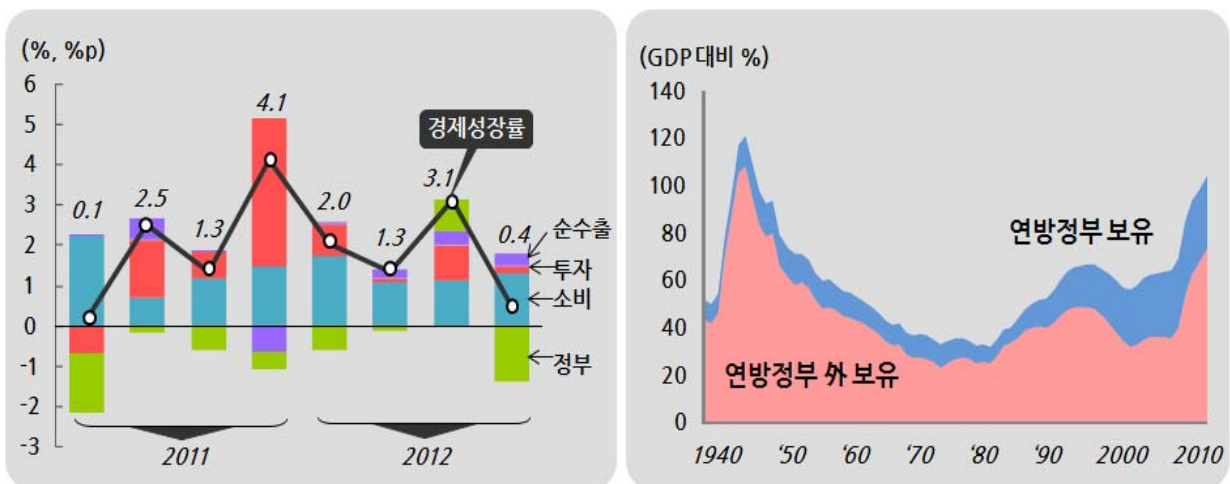
□ 미국경제는 아직 성장케도를 확실히 회복하지 못하고 저성장을 지속

- 최근 주택시장 회복 등을 근거로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
 - S&P/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는 2012년 2월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여 저점 대비 8.1% 상승(2013년 1월)¹⁾
- 하지만 201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고 실업률이 7% 이상의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경기회복의 기반은 아직 취약

□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재정상황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

- 재정수지는 2012년까지 4년 연속 1조달러를 상회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연방정부 부채는 1950년대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

미국 재정수지 및 연방정부 부채 추이



주: 연방정부 부채는 연방정부 보유분(Debt held by government)과 연방정부 외 기관 등의 보유분(Debt held by the public)으로 구성

자료: BEA; OMB

¹⁾ 정점(2006년 4월)에 비해서는 28.4% 하락

재정절벽은 회피했으나 시퀘스터는 결국 발효

□ 미국경제의 리스크로 부상했던 재정절벽²⁾을 가까스로 회피했지만

합의 내용은 미국이 당면한 재정문제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으로는 미흡

- 2013년 초 미국 정치권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유층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합의³⁾를 도출하여 가까스로 재정절벽 회피에 성공

· 가구 기준으로 연간 45만달러(개인 기준 40만달러) 초과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⁴⁾

· 그 밖에 자본이득세와 배당세, 급여세 등을 인상

- 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

· 합의안에 따른 향후 10년 동안의 세수 증가 추정액은 6,500억달러⁵⁾로 긴축조치가 없을 경우의 누적 재정적자 규모 10조달러⁶⁾에 크게 미달

□ 재정절벽 협상 이후 재정지출 자동감축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합의가

필요했지만 정치권의 협상 부진으로 2013년 3월 1일 결국 시퀘스터가 발효

- 예산통제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시퀘스터)는 연초 재정절벽 협상에서 2개월 유예하기로 합의

- 하지만 정치권이 재정지출 조정방안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퀘스터가 시행

²⁾ 재정절벽(fiscal cliff)은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2013년부터 소득세 등 한시적인 세금감면이 종료되고 예산통제법에 따라 재정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등 GDP의 4%를 넘는 재정긴축이 발생하여 미국경제가 재침체에 빠질 위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중 미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대두

³⁾ The 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⁴⁾ 이는 가구 기준 연간 25만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인상을 주장한 민주당과 모두 소득계층에 대해 세율 유지를 주장한 공화당이 한 발씩 양보한 결과

⁵⁾ Kessler, B. & Hopkins, M. (2013). U.S. Fiscal Outlook: A Long Way Forward. Moody's Analytics.

⁶⁾ CBO (2012.8.).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2.

- 시퀘스터가 지속될 경우 2013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중 850억달러, 2021년까지 총 1조 2,000억달러의 예산을 삭감

시퀘스터(Sequester)

- ▷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을 강제 삭감하는 제도
 - 1985년 균형예산 및 긴급 적자통제법(일명 '그램-러드맨-홀링스 법')에서 적자한도 초과 예산을 강제 삭감하는 제도로 도입하여 1990년까지 시행
 -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정한 2011년 예산통제법에서 특별위원회의 합의를 강제하기 위한 역인센티브로 재도입 → 특별위원회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2013~2021년 중 총 1조 2,000억달러의 정부지출을 국방예산과 비국방예산에 균등 배분하여 일률적으로 삭감하도록 규정

재정정책이 미국경제 향방의 주요 변수

- 재정긴축의 강도와 내용, 재정건전성 등은 미국경제의 회복 속도와 장기 성장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높은 실업률과 투자 부진 등으로 경제활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잘 조정되지 않은 재정긴축은 자칫 경제회복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
 - 재정정책의 높은 불확실성도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 미국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재정정책 방향을 전망
 - 민주당과 공화당은 재정정책 기조와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의견 차가 심각한 가운데 한 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기도 어려운 구조
 - 핵심 이슈에 대한 정치권의 협상이 단기 및 중장기 재정정책의 방향과 미국경제의 진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2. 미국 재정정책의 3대 이슈

민주당은 증세를, 공화당은 지출 축소를 주장

□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이한 경제철학을 바탕으로 상반된 재정정책을 추구하면서 재정건전화에 대해서도 대립적인 방안을 주장

-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시장과 경쟁의 긍정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추구
 - 민주당은 부유층 증세 등 조세형평성 제고와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인프라 등에 대한 정부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선호
 - 반면, 공화당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주장
-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에서도 민주당은 세금 인상에 중점을 두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축소에 초점
- 세금, 시퀘스터, 의료개혁 등이 재정정책 협상의 주요 이슈
 - 민주당은 세금 인상과 함께 복지지출의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세금 인상 없이 재정지출을 축소하자고 주장

재정정책의 주요 이슈와 정치권의 대립 구도

주요 이슈		민주당	공화당
세금	① 세금인상	· 부유층 추가 증세 · 대기업 세금혜택 축소	· 추가 증세 반대
	② 시퀘스터	· 세금 인상 + 지출 유지	· 증세 없이 복지 지출 축소
지출	③ 의료개혁	· 의료개혁법 수정 없이 전면 시행	· 오바마 의료개혁 폐지 · 의료보장 부분 민영화

이슈 1. 세금: 추가 인상 vs. 증세 반대

- ▶ 2013년 초 부유층 증세 이후 추가 세금 인상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대립
 - 민주당은 추가 세수 확대를 주장하고, 공화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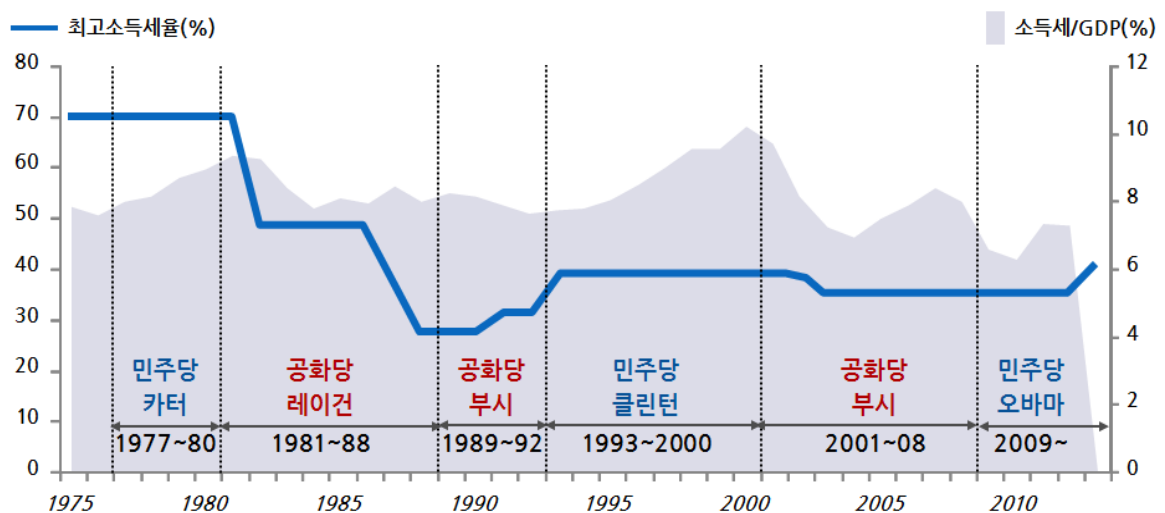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등으로 미국의 세금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증세의 필요성을 주장
 - 미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은 195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2012년 재정수입은 2.4조달러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2.6조달러에 미달(GDP 대비 18.5% → 15.8%, 2.7%p 하락)
 -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등에 대한 세금 인상을 재정건전화 해법으로 제시
 - 개인 소득세는 세수의 46.3%(2012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
- 2013년 초 재정절벽 협상에서 부유층 세금 인상에 합의
 - 민주당과 공화당은 2012년 말로 종료되는 부시 행정부 감세조치의 연장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재정절벽 협상이 지연
 - 민주당은 연간소득 25만달러 이상인 가구의 세율 인상을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세금 인상에 반대
 - 2013년 초 연 45만달러 이상의 가구 소득(개인 40만달러 이상)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합의
 - 민주당은 당초 주장보다 세금 인상 가구를 축소하고 공화당은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감세조치 전면 연장 주장에서 후퇴
-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세금 인상을 주장함에 따라 갈등이 재연
 - 2013년 초의 세금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

-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 6,000억달러의 세수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합의안에 따른 재정수익 증가액은 6,500억달러에 그칠 전망
-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세금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
- 2014년 예산안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공제 제한, 최저세율 적용 등을 통해 2023년까지 세수를 5,830억달러 늘리는 방안을 제안
- 반면, 공화당은 2013년 초의 합의로 세금 문제가 종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주장대로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대처

미국 소득세율의 변화

- ▷ 재정정책에서 민주당은 증세에 적극적인 반면, 공화당은 감세를 선호
 - 1980년대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은 최고 소득세율을 70%에서 28%로 대폭 인하했고, 2000년대 부시 대통령도 감세정책을 추진
 - 반면 재정건전화를 추진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은 최소 소득세율을 31%에서 39.6%로 인상했고, 오바마 대통령도 부유층 증세를 주장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 및 개인소득세 비중 추이



자료: Tax Foundation; CBO

이슈 2. 시퀘스터: '증세 + 지출' 조정 vs. 복지지출 축소

- ▶ 이미 시행 중인 시퀘스터의 수정 방향에 대해 양당의 입장이 상이
 - 민주당은 지출을 가급적 유지하되 세금을 인상하자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증세 없이 지출 축소 규모를 유지하면서 예산항목 간 조정을 주장

□ 2013년 3월 발효된 시퀘스터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불가피

- 시퀘스터로 인한 예산 감축은 2013 회계연도 정부 예산의 2.4%로 추산
 - 2013 회계연도 중 총 640억달러의 지출이 감소할 전망
- 시퀘스터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0.5%p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4~3/4분기 중 부정적 영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⁷⁾

미국의 시퀘스터 사례 비교

회계연도	지출감소액		GDP 대비		총지출 대비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1986	117	117	0.3	0.3	1.2	1.2
1988	200	33	0.4	0.1	1.9	0.3
1990	161	46	0.3	0.1	1.3	0.4
2013	640	-	0.4	-	1.8	-

주: 1986 회계연도에는 시퀘스터가 계획대로 모두 실행되었으나, 이후에는 시퀘스터 발효 이후 의회가 지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자료: Goldman Sachs (2013.3.1.). The Sequester: Here to Stay?

□ 시퀘스터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당초 2011년 예산통제법에 시퀘스터 조항을 넣은 것은 실제 발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재정건전화 방안 합의를 강제하려는 목적
 - 시퀘스터는 각 예산항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출을 삭감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쁜 정책'으로 의도된 조치⁸⁾

⁷⁾ 시퀘스터에 의해 감축되는 것은 연방정부기관이 계약, 고용, 구매 등을 통해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한도인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이며, 실제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제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출(outlays)로서 예산 감축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지출이 감소

- 따라서 시퀘스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에는 양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큰 틀 내에서 논의가 진행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으로 시퀘스터를 대체할 것을 주장
- 공화당은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한편, 의료보장 등 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지출감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이슈 3. 의료개혁정책: 시행 vs. 폐지

- ▶ 빠르게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이 상반
 - 민주당은 2010년 제정된 의료개혁법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입장이지만,
 - 공화당은 재정적자 억제를 위해 의료개혁 폐지를 주장

□ 2010년 제정된 의료개혁법⁹⁾은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 의료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책
 -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이 17%에 달하고 높은 의료비 지출에 비해 기대수명은 선진국 중에서 하위권에 머무는 등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 1965년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¹⁰⁾를 도입한 이후 미국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의료개혁으로 평가
 - 2012년 8월 연방대법원이 합헌 판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이 확정
-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의료개혁법의 핵심규정들은 2014년부터 시행
 - 고소득층의 메디케어 급여세는 2013년부터 인상되었고, 고가 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세는 2018년 도입 예정

⁸⁾ Rivlin A. (2013) Squester Was Intended To Be Bad Policy, Let's End It. Brookings.

⁹⁾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Obamac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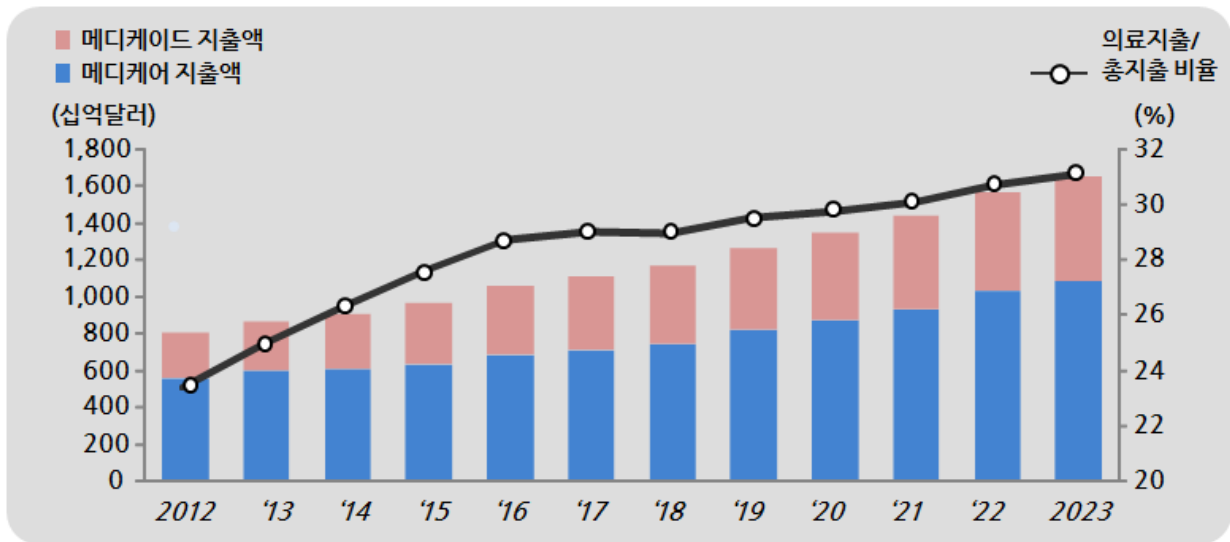
¹⁰⁾ 메디케어(Medicare)는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연방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메디케이드(Medicaid)는 소득이 빈곤선의 65% 이하인 극빈층에게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

미국 의료개혁법의 주요 내용

- ▷ 의료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
 -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을 빈곤선 소득(4인 가족 기준 연 2만 3,050달러)의 65% 이하에서 133% 이하 계층으로 확대
 - 정규직 50인 이상 기업의 직장의료보험 제공을 의무화
 - 저소득층에게는 의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고 소기업에는 세제혜택 부여
- ▷ 재원 마련을 위해 고소득층의 세금을 인상
 -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개인 20만달러) 이상의 급여세율을 0.9%p 인상
 - 2018년부터 고가보험(개인 1만 200달러, 가족 2만 7,500달러) 가입자에게 보험료의 40%를 소비세로 부과

-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와 저성장 등으로 의료보장에 필요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은 2012년 23.3%에서 2023년 31.1%로 7.7%p 상승
 - 2012~2023년 중 총 재정지출이 3.5조달러에서 2023년 5.9조달러로 67.8% 증가한 데 비해 의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같은 기간에 123.5%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고령인구 증가로 메디케어 지출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로 메디케이드 관련 재정지출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2014~2023년 중 메디케어 지출이 의료보장 지출의 58.3%를 차지
 - 2014년부터 10년간 메디케어 지출은 95.8%, 메디케이드 지출은 128.5% 증가할 전망

의료보장 관련 재정지출 전망



자료: CBO (2013).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3 to 2023.

□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이 대립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재의 의료개혁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
 -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메디케어 등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소 후퇴했으나, 정부부채 축소를 위한 세금 인상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 하지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의 추가 확대를 주장하는 등 의료개혁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

- 반면, 공화당은 향후 10년간 4.6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여 균형예산을 달성하는 예산안에서 의료개혁법 폐지를 주장
 - 의료개혁법을 폐지하고 55세 이하의 국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메디케어를 부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포함

- 의료개혁의 기본틀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공화당은 이를 세금문제 등에서 민주당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 가능

3. 전망

정치권 대립으로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장기화

□ 정치권의 양극화 현상과 함께 의회의 주도권 분열 등으로 신뢰할 만한 재정정책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 중도성향의 정치인이 감소하는 등 지난 50여 년 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성향이 점차 양극화되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가능성이 감소¹¹⁾
- 더욱이 2010년 말의 중간선거 이후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진 구도가 지속되어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
 - 중요한 이슈의 협상이 마지막에 가서야 과국을 연기하는 미봉책에 합의하는 수준에 그쳐 재정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12) 13)}

□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2014년 예산안 등이 재정정책 협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지만 획기적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

- 2013년 5월 18일이 시한인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협상과 2014년 예산안 심의에서 세금 및 정부지출 등을 논의할 전망
 - 연방정부 채무한도는 2012년 말로 소진되었으나 2013년 5월 18일까지 채무한도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한 상태
-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 최선의 재정정책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

¹¹⁾ Binder, S. (2013) Prospects for the 113th Congress. Brookings.

¹²⁾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경제의 가장 큰 적은 미국 의회"라고 비판(A Showdown Long Foreseen. (2012.12.30.). *The New York Times*.)

¹³⁾ 미국 의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실패 등으로 2011년 17%, 2012년 15%로 낮아졌으며, 시퀘스터가 발동한 2013년 3월 1일 이후 13%로 추가 하락(Gallup (2013.3.11.). Congress Approval Stagnant at Low Level.)

재정정책은 미국경제에 중장기적 하락압력으로 작용

□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가 상반

-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변화에 따른 총수요 변동이 크게 작용
 - 기초 재정수지의 1달러 변동은 수분기에 걸쳐 GDP를 평균 1달러 (0.33~1.67달러) 변동시키는 것으로 추정¹⁴⁾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의 누적이 잠재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 재정적자 증가 시 2014~2016년 중에는 경기부양효과를 발휘하지만 국내저축 감소와 민간투자 위축으로 2017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하락¹⁵⁾

□ 미국 및 세계 경제의 회복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전망과 접근이 필요

- 최근 주택 등 일부 지표의 호전과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
-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장기침체를 억제했던 재정정책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미국경제 회복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상당기간 동안 재정긴축과 함께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¹⁶⁾
- 세계경제의 회복 동력이 여전히 취약하여 한국의 수출 등 대외환경은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이 재정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경기하락 리스크와 함께 자본이동 급변에 따른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위험에도 유의

<以上>

¹⁴⁾ CBO (2013). Macroeconomic Effects of Alternative Budgetary Paths.

¹⁵⁾ CBO (2013). Macroeconomic Effects of Alternative Budgetary Paths.

¹⁶⁾ 특히, 제로금리 정책으로 인해 추가 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증폭(Johannsen, B. (2013). When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Uncertainty Large?)

주간 금융지표

금리 :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동결 결정 여파로 큰 폭 상승

	4.08	4.09	4.10	4.11	4.12
회사채(AA-)	2.84	2.86	2.85	3.00	3.03
회사채(BBB-)	8.45	8.47	8.46	8.61	8.65
국고채(3년물)	2.47	2.49	2.48	2.63	2.67
콜금리	2.73	2.75	2.74	2.73	2.73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엔화, 유로화 대비 약세

	4.08	4.09	4.10	4.11	4.12
원/달러	1140.1	1139.4	1135.7	1129.1	1129.1
엔/달러	99.37	99.03	99.79	99.68	98.40
달러/유로	1.3009	1.3082	1.3070	1.3103	1.3112
원/100엔	1147.39	1150.62	1138.15	1132.72	1147.46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북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美 양적완화 지속 기대감 등으로 상승

구 분		4.08	4.09	4.10	4.11	4.12
거 래 소	KOSPI(p)	1,918.69	1,920.74	1,935.58	1,949.80	1,924.23
	거래량(만주)	31,335	35,663	32,015	38,658	40,738
	시가총액(조원)	1,113	1,114	1,123	1,131	1,117
	외국인순매수(억원)	-3,668	-782	512	2,614	-418
코스닥지수(P)		528.78	528.15	534.84	544.30	547.19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4. 15 ~ 4. 19)

04. 15. (월)

- 해외 보도자료: 중국 1/4분기 GDP성장률 (국가통계국)
중국 3월 산업생산 (국가통계국)

04. 16. (화)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2013년 제6차(3.28일 개최)금통위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

04. 17. (수)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3월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1분기 조선산업 동향 (산업자원통상부)

04. 18. (목)

- 국내 보도자료: 2012년 중 상장기업 경영분석 (한국은행)
2013년 1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 요약 (한국은행)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자원통상부)
3월 전력판매량, 전력시장 거래 동향 (산업자원통상부)

04. 19. (금)

- 국내 보도자료: 3월 어음부도율 (한국은행)

주간 해외 경제일지

(4. 8 ~ 4. 12)

미 주

4. 8. (월) · 미국: 2월 개인소득 전월대비 1.1% 증가, 상무부
4. 9. (화) · 미국: 2월 개인소비지수 전월대비 0.7% 상승, 상무부
4. 10. (수) · 미국: 3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월대비 1.6p 하락한 54.4, 공급자관리협회
4. 11. (목) · 미국: 3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하락한 7.6%, 노동부
4. 12. (금) · 미국: 2월 도매재고지수 전월대비 0.3% 하락, 상무부

유 럽

4. 8. (월) · 프랑스: 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9% 상승, 통계청
4. 9. (화) · 그리스: 1월 소매판매액 전년동월대비 16.2% 감소, 통계청
4. 10. (수) · 이탈리아: 3월 PMI제조업지수 전월대비 1.3p 하락한 44.5, Markit
4. 11. (목) · 영국: 3월 신규차량등록 전년동월대비 5.9% 증가, 통계청
4. 12. (금) · 유로지역: 2월 소매판매 전년동월대비 1.4% 감소, Eurostat

일 본

<p>4. 8. (월) · 일본: 2월 주택착공건수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국토교통성</p>
<p>4. 9. (화) · 일본: 2월 건설수주 전년동월대비 16.3% 증가, 국토교통성</p>
<p>4. 10. (수) · 일본: 3월 자동차판매 전년동월대비 15.6% 감소, 자동차판매연합회</p>
<p>4. 11. (목) · 일본: 3월 본원통화 전년동월대비 19.8% 증가, 중앙은행</p>
<p>4. 12. (금) · 일본: 2월 경상수지 전년동월대비 47.0% 감소, 재무성</p>

아 시 아

<p>4. 8. (월) · 필리핀: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통계청</p>
<p>4. 9. (화) · 대만: 3월 총수입 전년동월대비 0.2% 증가, 재무부</p>
<p>4. 10. (수) · 중국: 3월 총수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 중국해관총서</p>
<p>4. 11. (목) · 호주: 3월 실업률 전월대비 0.2%p 상승한 5.6%, 국가통계국</p>
<p>4. 12. (금) · 말레이시아: 2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통계청</p>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8	2.3	43.8	8.5	4.7	3.2	..	14.3	11.9	7.02	0.03	0.02	1,124.5
2009	0.3	49.1	-0.2	2.8	3.6	2.2	10.3	7.9	5.81	0.03	0.02	1,682.8
2010	6.3	52.2	3.8	3.0	3.7	9.1	8.7	8.2	4.66	0.03	0.03	2,051.0
2011	3.6	47.3	6.7	4.0	3.4	1.6	4.2	5.3	4.41	0.02	0.02	1,825.7
2012	2.0	44.8	0.7	2.2	3.2	6.2	3.77	0.02	0.02	1,997.1
2012. 3	2.8		2.4	2.6	3.7	10.5	5.7	8.7	4.36	0.01	0.01	2,014.4
4			1.9	2.5	3.5		5.5	8.6	4.25	0.02	0.02	1,981.9
5		46.6	1.0	2.5	3.1		5.5	8.4	4.01	0.01	0.01	1,843.8
6	2.4		-0.0	2.2	3.2	6.1	5.9	8.5	3.87	0.02	0.01	1,854.0
7			-0.6	1.5	3.1		6.0	8.4	3.60	0.02	0.02	1,882.0
8		43.6	-0.1	1.2	3.0		5.7	7.8	3.40	0.02	0.02	1,905.1
9	1.6		0.2	2.0	2.9	4.7	5.2	7.6	3.31	0.02	0.01	1,996.2
10			-0.5	2.1	2.8		4.6	7.1	3.30	0.02	0.02	1,912.1
11		44.9	-0.9	1.6	2.8		4.4	7.1	3.32	0.03	0.03	1,932.9
12	1.5		-1.2	1.4	2.9	3.8	4.5	7.3	3.30	0.02	0.02	1,997.1
2013. 1			-1.6	1.5	3.4		4.8	7.7	3.20	0.02	0.02	1,961.9
2		46.4	-1.6	1.4	4.0		5.3	8.1	3.06	0.01	0.01	2,026.5
3	1.3	3.5	2.95	2,004.9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10=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8	86.4	100.8	1.1	1.1	2.4	-14.9	-7.6	77.6	3.3	15.7	-3.1	22.1
2009	93.3	97.4	2.6	4.3	-2.1	-12.0	5.0	74.4	-0.2	7.5	-9.2	13.0
2010	100.0	100.7	6.7	8.8	4.5	8.0	-17.7	80.3	16.7	38.2	19.9	-7.8
2011	102.4	101.0	4.5	7.7	5.6	7.6	6.1	80.2	6.0	27.0	11.1	2.9
2012	107.2	99.7	2.3	1.8	2.0	-13.4	-8.9	78.1	0.8	8.2	-3.2	4.9
2012. 2	105.4	100.5	5.1	4.7	2.7	25.1	99.1	80.4	15.3	15.5	35.7	17.0
3	105.7	100.2	1.1	3.0	6.4	-23.6	-12.8	78.7	0.5	5.4	3.5	0.0
4	106.2	100.0	0.4	-0.2	2.8	-4.4	-10.1	79.0	-0.4	-3.7	-1.3	0.8
5	106.3	99.7	2.7	2.9	1.4	-14.4	0.9	79.5	3.1	2.0	1.5	12.0
6	107.4	99.7	1.2	1.3	-0.1	-35.4	3.7	78.4	0.6	2.6	-3.0	0.7
7	108.0	99.8	3.8	4.2	0.1	-9.4	23.1	77.8	-0.3	-7.5	-10.8	7.7
8	108.1	99.3	1.1	-1.9	3.0	-13.8	-32.4	74.0	-2.1	11.8	-29.7	6.3
9	108.0	99.3	3.1	1.5	4.1	-8.1	-19.7	76.7	-0.8	0.0	-11.4	12.7
10	108.3	98.9	1.6	-2.8	-3.3	-20.8	-26.6	77.0	-1.9	5.9	-4.8	6.1
11	109.1	99.1	4.3	13.3	5.0	-26.4	-20.0	78.0	2.1	25.4	3.5	5.4
12	109.9	99.2	2.2	0.9	1.6	-17.0	-43.0	78.4	-0.4	30.0	-4.9	7.7
2013. 1	110.1	99.2	-3.3	-8.6	-19.9	-6.0	-52.7	78.7	7.6	27.2	23.9	31.8
2	110.4	99.3	1.8	1.4	8.0	-32.7	-46.4	77.8	-9.3	7.2	-17.5	-6.8

주: 2008년 1월부터 현행 2000년 기준지수를 2005년 기준으로 변경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363,534	-13.9	323,085	-25.8	37,650	-18.8	190,761	-10.9	86,703	-5.1	46,608	-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	-0.3
2011	555,214	19.0	524,413	23.3	56,208	12.8	314,006	23.1	134,185	14.8	55,727	4.2	-10.9
2012	547,870	-1.3	519,584	-0.9	58,525	4.1	318,235	1.3	134,323	0.1	49,371	-11.4	-2.4
2012. 2	46,316	20.4	45,100	23.9	5,619	47.4	25,862	16.1	10,500	9.6	4,562	19.8	-6.5
3	47,330	-1.5	45,053	-1.1	5,935	27.8	27,042	0.2	11,043	-4.1	4,351	-20.5	-6.6
4	46,095	-5.0	43,957	-0.5	5,307	4.2	24,837	-5.9	10,464	-3.2	4,220	-20.9	-7.5
5	46,872	-1.0	44,480	-1.8	4,727	-8.6	26,372	0.0	10,716	-5.1	4,571	-0.8	-3.2
6	47,163	0.9	41,994	-6.3	4,977	0.2	26,499	3.3	10,829	-2.7	4,082	-20.2	-2.7
7	44,668	-8.7	41,977	-5.2	4,692	0.9	26,348	-7.0	11,247	-4.9	3,772	-10.5	1.2
8	43,045	-6.0	41,116	-9.4	4,222	-2.3	25,245	-6.5	11,062	-4.8	4,322	2.9	2.1
9	45,413	-2.4	42,560	-6.0	4,814	0.4	26,833	0.2	11,783	1.0	4,302	-6.0	-0.0
10	47,088	1.0	43,380	1.6	4,439	-3.6	28,343	5.9	12,461	5.2	4,039	2.4	-0.3
11	47,805	3.9	43,382	0.9	5,114	-5.3	29,584	11.9	12,429	11.0	3,466	-14.0	-0.4
12	44,875	-6.0	43,069	-5.3	4,555	-1.0	27,526	0.7	11,994	2.7	3,792	-8.5	2.7
2013. 1	45,700	10.9	45,204	3.9	5,000	21.3	26,363	11.0	11,423	16.6	3,762	-3.3	-0.1
2	42,340	-8.6	40,316	-10.6	4,980	-11.4	24,147	-6.6	10,397	-1.0	3,861	-15.4	-0.2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8	3,197.5	5,170.1	-5,734.1	4,435.4	109.3	-16,940.4	-2,405.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0.5	37,866.0	-6,640.5	2,276.7	289.6	-14,948.0	49,727.7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3.5	40,082.5	-8,626.0	1,015.9	-217.9	-22,184.3	42,479.8	291,571	1,138.9	1,397.08	3,597.6	913.0
2011	26,068.2	31,660.0	-5,849.5	2,890.9	-24.7	-16,410.0	13,109.3	306,402	1,153.3	1,485.16	3,987.2	979.6
2012	43,138.5	38,337.7	2,676.2	4,885.5	602.1	-18,628.1	10,114.8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2. 3	2,971.4	2,926.3	699.7	-317.5	100.0	-1,617.4	1,303.9	315,952	1,137.8	1,380.74	4,116.6	998.6
4	1,734.0	1,750.8	549.7	-422.0	102.3	-940.4	-2,213.3	316,837	1,134.2	1,412.01		
5	3,574.9	1,715.9	1,593.0	341.6	144.2	-1,382.0	-937.1	310,872	1,177.8	1,489.10		
6	5,879.9	5,053.8	170.0	901.8	37.8	-692.8	-2,330.9	312,378	1,153.8	1,453.79	4,157.7	929.4
7	6,144.3	5,340.6	593.3	401.9	36.3	-1,443.6	2,529.2	314,348	1,136.2	1,453.59		
8	2,504.3	2,514.0	-262.2	435.5	8.0	-1,607.1	580.9.	316,885	1,134.6	1,443.97		
9	5,913.1	5,486.6	323.3	203.9	32.4	-2,378.2	2,668.7	322,015	1,118.6	1,441.12	4,193.8	1,072.1
10	5,781.7	5,168.9	378.3	521.9	-6.1	-975.0	-4,657.2	323,461	1,094.1	1,374.50		
11	6,906.2	6,777.4	-51.6	374.3	5.8	-1,336.2	-3,875.8	326,091	1,084.7	1,320.55		
12	2,140.2	1,917.3	30.8	639.0	107.1	-669.5	3,194.2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3. 1	2,331.7	2,617.7	-927.1	968.4	48.5	-1,417.7	-4,374.3	328,910	1,082.7	1,188.47		
2	2,712.9	2,562.9	-461.0	628.9	37.8	-777.8	1,993.5	327,395	1,085.4	1,176.20		
3	327,408	1,112.1	1,180.13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3	-3.5	3.8	5.8	13,075	25,410	-6,771	0.25	8776.4
2009	-3.1	-11.4	-0.3	9.3	10,697	19,581	-3,819	0.25	10428.1
2010	2.4	5.4	1.6	9.6	12,889	23,372	-4,420	0.25	11577.5
2011	1.8	4.1	3.1	8.9	14,974	26,632	-4,659	0.25	12217.6
2012	2.2	3.8	2.1	8.1	15,641	27,340	-4,750	0.25	1310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8	-1.0	-3.4	1.4	4.0	8,102	7,895	1,677	0.1	859.2
2009	-5.5	-21.8	-1.3	5.0	5,417	5,150	1,376	0.1	907.6
2010	4.7	16.6	-0.7	5.1	6,740	6,076	1,788	0.1	898.8
2011	-0.6	-2.3	-0.3	4.6	6,555	6,808	955	0.1	728.6
2012	2.1	-1.0	0	4.4	6,374	7,067	462	0.1	859.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3	-2.3	3.3	7.6	15,771	16,151	-1,423	2.50	2451.5
2009	-4.4	-13.7	0.3	9.6	12,800	12,682	-211	1.00	2966.2
2010	2.0	4.1	1.6	10.1	15,338	15,519	-20	1.00	2792.9
2011	1.5	2.6	2.7	10.2	17,452	17,598	89	1.00	2316.5
2012	-0.5	-2.9	2.5	11.4	18,697	17,899	1,161	0.75	2660.0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8	0.0	2.6	7.6	9,816	8,052	1,620	0.86	4810.2
2009	-5.1	-15.5	0.3	7.7	8,018	6,642	1,366	0.28	5957.4
2010	4.0	10.1	1.1	7.0	9,464	7,946	1,496	0.31	6914.2
2011	3.1	8.0	2.1	6.0	10,567	9,005	1,574	-0.18	5898.4
2012	0.9	-0.8	2.0	5.5	10,996	9,103	1,385	-0.05	7612.4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8	-1.0	-2.7	3.6	5.6	2,521	3,462	-183	2.0	4434.2
2009	-4.0	-9.1	2.2	7.5	2,281	3,110	-172	0.5	5412.9
2010	1.8	2.2	3.3	7.9	2,657	3,642	-370	0.5	5899.9
2011	0.9	-0.8	4.5	8.0	2,991	3,993	-300	0.5	5572.3
2012	0.2	-2.3	2.8	8.0	3,005	4,068	-496	0.5	5897.8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2	-2.8	2.8	7.8	4,194	4,751	-356	1.66	3218.0
2009	-3.0	-12.6	0.1	9.6	3,469	3,920	-244	0.36	3936.3
2010	1.6	4.7	1.5	9.7	3,913	4,440	-300	0.40	3804.8
2011	1.7	1.7	2.1	9.6	4,266	5,009	-418	0.01	3159.8
2012	0.1	-2.2	2.0	10.3	4,440	5,113	-340	0.03	3641.1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9.1	12.8	5.9	4.1	14,287	11,315	4,124	5.31	1820.8
2009	8.5	12.2	-0.7	4.3	12,020	10,039	2,610	5.31	3277.1
2010	10.4	14.5	3.3	4.2	15,784	13,939	2,376	5.81	2808.1
2011	9.3	13.8	5.4	4.1	18,993	17,416	2,017	6.56	2199.4
2012	7.8	10.0	2.7	4.1	20,501	18,173	2,138	6.31	2269.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7	-1.8	3.5	4.1	2,556	2,405	275	2.00	4591.2
2009	-1.8	-8.1	-0.9	5.9	2,037	1,744	429	1.25	8188.1
2010	10.8	26.9	1.0	5.2	2,746	2,514	399	1.63	8972.5
2011	4.1	5.0	1.4	4.4	3,084	2,816	416	1.88	7071.1
2012	1.3	-0.1	1.9	4.2	3,011	2,707	320	1.88	7699.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